# 광주FC, 대구 상대로 홈 2연승 정조준

**오늘 광주월드컵경기장 10라운드**
**헤이스, 3경기 연속골 등 상승세**
**ACLE 병행 불구 선수단 '자신감'**
**경기 전 이정효 감독 팬 사인회도**

광주FC가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대구를 상대로 2경기 연속 홈 승리에 도전한다. 사진은 광주 선수들이 지난 6일 제주와의 홈 경기 승리 후 팬들과 기뻐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FC가 대구FC를 상대로 2경기 연속 홈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6일 제주SK FC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김경민 골키퍼를 필두로 4명의 수비수가 버티는 최후방의 집중력은 경기 내내 유지됐고 공격진에선 헤이스가 3경기 연속 골 맛을 보며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2승 4무 1패(승점 10)를 기록, 6위로 도약했다.

광주는 이날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 종료 직후부터 대구와의 경기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광주 선수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일정 여파로 10라운드 대구전을 앞당겨 치르기에 휴식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전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다.

다만 광주와 대구 모두 앞서 주말 경기를 치렀고 이번 경기를 치른 후엔 또 다시 주말 경기에 나서야 하는 까닭에 체력 부담을 안고 있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은 직전 경기와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광주는 이번 경기에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올 시즌 초반부터 ACLE와 리그 일정을 병행하며 고정된 라인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 경기 로테이션을 반복했고 공수 양면에서 선발로 나서는 선수와 교체로 투입되는 선수의 격차가 적었다. 어떤 선수가 경기에 나서도 광주의 색깔과 철학이 그라운드 위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대 대구는 4연패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방심을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이유다.

광주는 이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앞선 대전하나시티즌전 다이렉트 퇴장 여파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된 이정효 감독이 직접 팬과의 스킨십에 나선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당일 오후 6시 20분부터 약 50분간 경기장 옆 롯데아울렛 외부 광장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을 위해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주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KIA, 11~13일 SSG전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홈경기에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11일은 크리에이터 랄랄이 시구자로 나선다. 부녀회장 컨셉의 부캐인 '이명화'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랄랄은 이날 이명화 분장을 하고 마운드에 설 예정이다.

랄랄은 "아버지가 KIA 팬이시기도 해서 애착이 가는 팀이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정말 축하하고, 이날 경기에서 꼭 KIA가 승리해 승요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12일은 광주 대인시장에서 천원 밥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온 김윤경 씨가 시구를 한다. 김윤경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천원 밥집을 물려 받아 운영하며 2대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13일은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시구를 맡는다.

박지현은 지난 2022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최종 2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목포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대학 생활을 한 박지현은 "지난해 우승팀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 챔피언스 필드에 직관도 갔었는데 시구를 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고 설렌다. 선수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경기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광주 스쿼시 문하람·박솔민, 전국선수권대회 우승

광주 스쿼시 학생선수들이 지난 3~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5회 태산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일미래과학고 오준엽 감독, 김태영, 다움스포츠클럽 문하람, 동일미래과학고 박솔민, 박은찬, 서한규 선수, 오민재 코치. 광주스쿼시연맹 제공

광주 스쿼시 문하람(화정중 3·광주다움스포츠클럽)과 박솔민(동일미래과학고 2)이 제5회 태산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금빛 스트로크를 날렸다.

문하람은 지난 3~6일 나주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15세이하부 개인전 결승에서 이해인(연성중)을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문하람은 부전승으로 16강을 통과한 뒤 8강서 이시우(경남유스스쿼시클럽)를 3-0(11-1 11-3 11-3)으로, 준결승에서 김도은(세종중)을 3-0(11-7 11-4 11-9)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문하람은 결승서 이해인에게 첫 세트를 4-11로 내줬으나 2세트를 12-10, 3세트를 11-7로 연달아 꺾고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4세트를 4-11로 내줬으나 5세트를 12-10으로 이겨 정상에 올랐다.

대한스쿼시연맹 청소년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문하람은 올해 광주 화정중으로 전학해 광주다움스포츠클럽의 지원을 받으며 올시즌을 치르고 있다. 지난 3월 제2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라이벌인 이해인에게 0-3으로 져 준우승에 그친 문하람은 매일 광주시체육회 스쿼시장에서 체력과 기술 훈련을 매진한 결과 이번 대회에서는 이해인을 상대로 설욕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솔민은 같은 대회 여자 18세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솔민은 16강서 김유빈(나주스포츠클럽)에 3-0(11-9 11-1 11-4), 8강서 박예원(장호원고)을 3-0(11-4 11-2 11-4), 4강서 정단아(경남스쿼시연맹)를 3-0(11-6 11-0 11-2)으로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서예은(산본고)을 만나 1세트를 11-8로, 2세트를 11-3으로 이기고 기선을 제압했다. 3세트에선 7-11로 내줬지만 4세트에서 접전 끝에 13-11로 꺾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이로써 박솔민은 지난 3월 제2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섰다.

동일미래과학고 서한규(2년)와 박은찬(3년)은 남자 18세이하부 복식 결승에서 곽서준-황승조(이상 언양고) 조에 1-2(11-6 5-11 8-11)로 져 은메달에 만족했다.

박은찬은 남자 18세이하부 개인전 준결승에서 김준호(양산제일고)에 0-3(2-11 2-11 2-11)으로 져 동메달을 추가했다.

오순근 광주다움스포츠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겠다"며 "이들이 경기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훈련환경 또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광주체육중·고, 전국조정선수권서 무더기 메달

### 금 3·은 3·동 3 등 9개 획득

광주체육중·고등학교 조정부가 올시즌 첫 대회인 제67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고 조정부는 지난 5~7일 경남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중 박예성·구시온(이상 2년)이 남자15세이하부(남U-15) 더블스컬(2X)에서 3분37초09 기록으로 엄궁중(3분37초09)과 충일중(3분45초94)을 따돌리고 금빛물살을 갈랐다.

광주체중 이수아·권지영(이상 3년)은 여U-15 더블스컬(2X)에서 3분48초30으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김지선(3년)은 여U-18 경량급싱글스컬(L1X)에서 2위 장서연(충주여고·8분39초70) 보다 28초30 앞선 8분11초40으로 결승점에 도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중 김준영(3년)은 남U-15 싱글스컬(1X)에서 3분57초60으로 1위 서부건(엄궁중·3분52초29)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 박준호(2년)는 남U-18 싱글스컬(1X)에서 8분37초96으로 은메달을, 강준우(3년)와 함께 출전한 남U-18 더블스컬(2X)에서 7분16초76으로 동메달을 각각 거머쥐었다. 강준우는 남U-18 경량급싱글스컬(L1X)에서 7분53초39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노효림(1년)은 여U-18 싱글스컬(1X)에서 9분13초27로 2위를 차지했고, 천지민(1년)과 호흡을 맞춘 여U-18 더블스컬(2X)에서는 7분59초43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신영금 광주체고 조정감독은 "올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비롯 모든 전국대회에서도 이번 대회의 좋은 기세를 이어가 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무안군청 검도,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무안군청 검도팀이 2025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8일 전남검도회에 따르면 무안군청 검도팀은 지난 3~6일 경남 거창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동메달을 수확했다.

무안군청은 단체전 16강에서 달서구청을 3-2로 꺾은 뒤 8강에서는 구미시청과 1-1 접전 끝에 대표전에서 김한번의 손목치기 득점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준결승에서 전북도체육회를 4-3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남양주시청을 4-11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무안군청은 지난 2월 2025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 이어 올시즌 2개 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주장 유하늘은 6단부 이상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했다.

유하늘은 8강에서 주연우(달서구청)를 2-0으로 꺾었으나 준결승에서 조진용(용인시청)과 연장 접전 끝에 반대허리를 허용하며 0-1로 석패했다.

**최동환 기자**